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6인, ‘교리와장정’ 부정하는 범과”

기감 동대위 8일 규탄 성명... 소속 연회 동대위가 고발할 것 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기감 동대위)가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기감 중부연회 사무실에서 지난달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기감 소속 목회자 6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감 동대위는 이들 6인에 대해 각 연회별 동대위들이 기소위원회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동한 씨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해 정직 판결을 받고도 또 동성애 찬동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기감 교단에서 최종 출교조치를 받았다.

기감 동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축제에서 기감 소속 목사 6인이 동성애축복식에 참여해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는 반성경적이며 기감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난 3월 기감은 지난 2019년 인천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한 이동한 씨를 출교판결 했다. 이것은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축복식을 한 행위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정면 부정하는 범과임을 밝히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감 소속 목사 6인이 (올해 서울퀴어축제의)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는 매우 의도적 행동이었다”며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심각한 잘못이며 범과”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기감 총회 동대위에선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목회자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며 “그런데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그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고, 출교된 이동한에 이어서 축복식을 진행했으므로, 이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각 연회별 동대위 관계자들이 김찬호 감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또한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범과의 종류로 규정해, 이에 해당 시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3항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이 범과라고 분명히 ‘교리와 장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기감 목사들이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감리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출교된 이동한 씨를 제시하면서

“경기연회 재판부와 총회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동성애 축복식은 범과라는 것이 분명한 판례로 남았다”며 “그럼에도 기감 목사 6인이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것은 교단의 재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즉각 축복식을 사죄하고 감리교회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행한 기감 목사 6인에 대해 각 연회에서 동대위원장의 명이나 전 동대위원장-소속연회원이 직접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동한 씨의 동성애 축복식을 지지 서명한 목사들도 각 연회 자격위원회에서 자격을 다뤄줄 것을 청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감 동대위원장 김찬호 목사(중부연회 감독)는 기감 교단 내부의 동성애 인식을 묻는 질문에 “평신도의 90%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목회자의 경우 동성애 반대 비율이 70%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평신도와 목회자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 찬성자들은 언론을 통해 동성애 지지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퀴어축제의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들은 출신교단이 기감뿐 아니라 다양하다”며 “기감이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목사 6인을 바르게 처리한다면, 다른 곳도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면 한국교회는 거룩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UMC 교단의 친동성애적 흐름이 한국 기감 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UMC 교단의 교리와장정엔 ‘동성애 반대’를 적시했었으나, 동성애를 지지한 목회자에 대해 엄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감은 미국 감리교처럼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찬호 감독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한 씨에게 최종 출교판결을 내린 기감 총재위의 판례는 하나의 방향타를 제시한 것”이라며 “기감이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등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면,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낙인찍혀, 결국 복음적 교인들은 떠나고 기감 교단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찬동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동성애자를 모두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랑’이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나왔다”며 “동성애, 불륜, 이단 등 불의를 배제하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이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 진행 중인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8일 열린 상임회장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두 차례 강타한 대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약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11만 명의 부상자, 약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터뷰] 광고협 대표 회장 이종석 목사 >> 2면

인도 총선, 기독교 박해에 미칠 영향은? >> 7면

김영국 목사 “친구가 쓴 칭찬의 글” >> 22면

이에 한교총은 튀르키예에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36개 회원 교단과 함께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을 통해 약 52억 원을 모았다.

이 가운데, 14억 원은 지진 피해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 구호와 교단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긴급구호 자금으로 지원됐으며, 38억 원은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한교총은 모금된 성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난해 현재에 답사단을 파견, ‘튀르키예개신교회연합(TeK)’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호사업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교총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 및 복구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튀르키예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말라티야(Malatya)’와 ‘아디야만(Adiyaman)’, ‘하타이(Hatay)’ 지역 등이다.

먼저 ‘말라티야(Malatya)’에는 튀르키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곽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현지 지자체와



한교총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했다. ©한교총

협력, 18가정을 선정해 임시 거주할 컨테이너 숙소 제공과 생필품 및 식료품 등의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했다. 또한 말라티야 외곽의 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을 위해 낙후된 난방시설과 지붕을 교체하고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말라티야(Malatya)의 ‘PCK 한국 친선 마을’에 문화센터를 건축 준

공해 장애 및 트라우마 치료센터와 아동 돌봄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아디야만(Adiyaman)’에서는 내진 건축 자재를 사용해 교회당과 커뮤니티센터를 겸한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PCK 한국 친선 마을’의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향후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컴퓨터 교실, 도서관 및 지역 주민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유사시에는 주



한교총이 튀르키예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센터를 준공했다. ©한교총

민들의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하타이(Hatay)’다. 하타이의 중심지는 ‘안타키아’로서, 이곳의 한국어 표기는 ‘안디옥’이다. 안디옥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며, 사도 바울의 활동 근거지였다.

한교총은 하타이주 내 이스켄데룬(Iskenderun)과 알티노주(Altinozu)에서

지진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 가정을 위해 하타이 알수즈 시와 협력해 부지를 지원받아 교회와 커뮤니티센터, 가정집을 건축하여 ‘한국교회 마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인 안타키아 예배당의 복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교총은 2025년 3월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2024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동기획전

공존의 섬, 격렬비열도

格 列 飛 列 島

Gyeongnyeolbi-yeoldo, Islands of Coexistence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4. 07. 09 Tue
~ 09. 29 Sun

에코리움 기획전시실

“연합, 섬김, 부흥에 중점두고 교회연합 시스템 구축할 것”

[인터뷰]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석 목사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광교협)는 광주광역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며 광주 기독교계의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집회,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제38회 정기총회를 통해 이종석 목사(새로운교회)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새로운교회 뿐만 아니라 광주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석 목사를 만나 목회를 하게 된 계기, 광교협의 비전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76년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1983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CCC 전인 간사로 지원

하여 서울에서 사역하다 1990년부터 광주 CCC 대표로 섬기고 있다.”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CCC 설립자인 김준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CCC 간사가 되었고 이후 헌신적인 삶을 사역하게 되었다.”

-제38회 정기총회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부족한 사람에게 광주 교계를 섬길 수 있는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되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해주시리라 확신한다. 임직원 목사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 CCC 대표로 섬겼고 P2C 사역 대

표를 겸임하고 있는데?

“P2C(POWER TO CHANGE) 사역은 캠퍼스와 선교사역을 제외한 모든 커뮤니티 사역이다. 그동안 캠퍼스에서 배출된 나사렛 형제들을 직능별로 조직화하여 전문인 사역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메디컬사역, 교사사역, 비즈니스사역, 공직사역, 예술인사역, 가정사역 등 직장에서의 영성을 유지하는 FAITH & WORK 사역, 노인복지 사역, 교회 전도훈련 및 양육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키워갈 계획이다.”

-현재 청년들의 교회 이탈에 대한 생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캠퍼스 전략이 있다면?

“교회의 대사회적 설득력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전도와 양육, 등 제자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광교협 대표회장 이종석 목사. ©최승연 기자

리고 이웃들에 대한 섬김의 사역을 더 강화하여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회장으로 펼칠 사업은 무엇인지?

“연합과 섬김과 부흥에 중점을 두고 한 두 지도자의 영향력과 열심 때문이 아닌

많은 교회의 연합에 의한 사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호남 지역 복음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지역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교회주의적인 흐름이 있어 연합운동이 어려운데 그래도 광주는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하는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있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광교협협의 조직 안에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 대표회장으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국회를 방문하여 광주지역 국회의원 여덟 분과 한 자리에 모여 격려하고 축하는 자리를 갖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교계가 간담회를 하기로 합의한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다. 임직원들이 한마음

으로 협력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얼마 전에는 CTS 본사에서 제작진들이 광주로 내려와 CTS WEEK IN 광주 행사로 한 주간 동안 광주에서 모든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광주를 알리고 간증하며 저녁마다 은혜 넘치는 집회를 한 것도 특별한 은혜였다.”

-광교협의 비전은 무엇인지?

“가을에 있는 복음화 대성회와 성탄 문화축제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등 행사가 있고 몇몇 대형교회만의 행사가 아닌 광주의 작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확신한다. 이에 대한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빛을 광주가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도시가 되길 기도한다.”

최승연 기자

“태아는 독립된 인간... 낙태권 정당화 될 수 없어”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프랑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을 허용한 것을 비

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프랑스의 낙태 허용 헌법 개정은 인류 자유의 남용으로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프랑스가 낙태 허용 헌법 개정을 한 것

은 산모의 자유방임적 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거부한 세속주의로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생애 주기상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이면 살

아는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유아가 인간 생명인 만큼 태아도 명백히 인간 생명”이라고 했다.

또한 “태아는 모체(母體)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 개체”라며 “엄마의 심장과 뇌는 엄마의 것이고, 태아의 심장과 뇌는 태아의 것이다. 태아의 심장과 뇌를 가진 태아는 엄마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비록 태아가 그 생명의 유지를 지금은 모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이며, 태아는 독립된 인간 개체인 것”이라며 “그러므로 낙태 곧 인공적으로 임신 중단을 함으로써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이다. 이런 살인 행위

는 인간성의 말살로서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인권으로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간 태아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낙태권은 임신한 여성의 행복권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이며, 죽임 당하는 태아에게는 여성의 잔인한 일방적 권리 주장일 뿐”이라며 “따라서 낙태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회와 신자는 이런 오도된 인권에 바탕한 낙태권을 반대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낙태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 합법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

서, 출생 이후의 인간 못지않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했다.

이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이때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명의 실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작간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며 “그러하여 우리의 후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문화를 전수해 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심화과정’ 호응 속 진행 중

5주 기초과정 수료생들에게 보다 전문적 노하우 전수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심화과정’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빈체로에서 시작돼 수강생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시활본)가 주최하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건강한국사회의를위한국민연대, 바른문화연대가 주관하며 동반연과 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이 후원한다.

6주간 진행되는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심화과정’은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기초과정(5주) 수료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숙련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강사과정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심화과정은 현장투쟁과 SNS를 통해 활발한 시민활동을 펼치는 운동가들에게 시민운동의 역사성을 승계하고, 전문적 식견과 노하우를 갖춘 성숙한 시민활동가로 자리잡도록 돕기 위한 목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시활본은 소개했다.

시활본은 “현재 당면한 수많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해야 하고, 그들의 전략을 꿰뚫어야 하고, 연대하는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기독교 문화, PC주의, 젠더성혁명, 문화마시즘, 동성애 쓰나미, 다문화주의 물질, 학생인권조례,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등이 덮쳐오는 때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심화과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활본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 심화과정 강사들 중 한 명인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시활본

노력은 이론적 교육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에게 필수적인 신앙과 성품, 전문성을 구비한 실력은 훈련된 프로그램과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기에,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심화과정에 주요섭 대표(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홍영태

대표(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대표·진실역사교육연구회), 한효관 대표(건강한국사회의를위한국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 홍호수 사무총장(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S 대표·차바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복음법률사회 실행위원장),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라움·인권수호변호사회 공동대표), 서요한 대표(GMW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9인의 강사가 참여한다. 김진영 기자

“이 땅의 자유 위해 흘린 피... 그 위에서 맺은 한미동맹”

6·25 참전 미군들의 희생과 박애 정신 담은 다큐 영화 ‘K-A 가디언즈’ 심하보 목사, 한미동맹 중요성 알리고자 제작 결심 김채영 감독 “평화·안보,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길” 7월 22일 은평제일교회에서 목회자들 대상 시사회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군 약 195만 명 중 미군만 178만 명으로 90%가 넘습니다. 유엔군 전사자 약 3만 8천명 중에서도 3만 4천 명이 미군이었어.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다큐멘터리 영화 ‘K-A 가디언즈’를 만든 김채영 감독의 말이다. 영화 제목의 K와 A는 각각 대한민국(Korea)과 미국(America)을 의미한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이 수호자 곧 ‘가디언즈(Guardians)’임을 웅변하며 감사함을 전하는 ‘K-A 가디언즈’ 특별히 미국과 함께 이룬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올해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방위조약의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다큐 영화는 대한민국 번영의 울타리가 되어준 한미동맹의 바탕에 미군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6.25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국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의 젊은이들... 이 영화는 그들이 보여준 인류에 대한 박애와 휴머니즘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춘다. “지금까지의 드라마나 영화 등은 6.25

를 동족상잔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6.25에서 우리가 진정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미군이 이 땅에서 보여준 박애와 휴머니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흘린 그들의 피... 한미동맹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된 종전선언에 부담함을 느꼈다. 여전히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 목사는 “1949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자, 1년 뒤 북한은 6.25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래서 심 목사는 미국으로 향했다. 현지 의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 종전선언의 부담함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이름도 없는 작은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국에서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대령 등을 만났다. 6.25에서 오른 팔과 다리를 잃은 웨버 대령은 심 목사를 만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그 때 심 목사가 미국 인사들을 만나기



다큐멘터리 영화 ‘K-A 가디언즈’의 김채영 감독(왼쪽)과 이 영화를 제작한 심하보 목사(오른쪽) ©김진영 기자

위해 제작했던 것이 약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였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다큐 영화 ‘K-A 가디언즈’의 초기 버전이 됐다.

그리고 ‘K-A 가디언즈’를 제작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의 책 ‘6.25전쟁 1129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는 그 제목처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129일의 일들이 기록돼 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심 목사는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 ‘K-A 가디언즈’는 6.25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생전 윌리엄 웨버 대령을 비롯해 해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백선엽장군기념재단 명예이사장 등의 생생한 인터뷰를 이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5를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준 큰 힘이었습니다. 북한은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김채영 감독)

“이름도 모르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자유를 위해 아낌없이 산화한 참



미국에서 6.25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대령(가운데)을 만난 심하보 목사(맨 왼쪽)와 그의 아내인 신문자 사모. 6.25에서 오른 팔과 다리를 잃은 웨버 대령은 심 목사와 만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심하보 목사

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며, 이제 한미동맹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숭고한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기에,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심하보 목사)

한편, 최근 목회자 등을 중심으로 ‘K-A 가디언즈’의 시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많이 전사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휴전중인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닫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꼭 정경적으로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최근 시사회에 참석한 이재봉 교수(울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다큐 영화인 ‘K-A 가디언즈’가 제작돼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한 번의 시사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 1층 비전영화관에서 예정돼 있다. 그 전의 시사회가 영화 소개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시사회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별도 사업법인 설립 추진 않기로

8일 상임회장회의서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가 별도로 설립하고자 했던 사업법인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교총은 8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제7-2차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당초 한교총은 사업을 관장하는 별도 법인인 ‘한교(총) 문화사업 법인’의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미 한교총이 법인화 된 상황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이 제기돼 별도 법인은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인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시영 목사, 한기총)와의 통합 논의에 대해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오 목사는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돼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서) 지금은 가시적 성과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교총은 국가시험과 대기업 입사시험 등을 주일(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변경해 줄 것을 정부와 기업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주일에 치를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수험생들에게 장애가 되고 △대부분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이 시험을 치르기에 용이하며 △국민행복 추구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교총 회원교단들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이행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저출산대책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교총은 이날 △(가칭)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의 밤 개최(2024년 11월 3주 중) △3개 종단 자선축구축제 참가 및 협조 요청 등을 가결했고, 튀르키예에 구호사업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받았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좋겠다”라며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성숙함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8일 한교총 제7-2차 상임회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기쁨의교회 담임목사 **김 의 훈**

2024 포어

네 베틀에서 신을 벗으라

- 주일예배
1부 : 9시 / 2부 : 11시 30분
- 방송설교 안내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서울극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영동극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기독교일보 창립 13주년을 축하합니다.”

김명용 박사 “죄 많은 존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최근 온신학TV서 ‘죄 많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주제로 강연



김명용 박사(온신학 아카데미 원장, 장신대 전 총장(사진)가 최근 유튜브 채널 ‘온신학TV’에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 죄 많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개신교 안에서 유보된 침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가 마지막 날 침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행위에 의해 결국 최종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롭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일종의 싸구려 복음이고,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경향이 드러났다”며 “결국 종교 개혁자 루터, 칼뱅과 같은 분들이 얘기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가 결국 성도들의 윤리적인 타락

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바울 집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보면 결국, 구원의 확실성과 복음의 기쁨을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며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라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마지막 날 심판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요한복음 6장 17절을 인용해 “지금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의와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개혁과 신학자 비트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라며 “이들을 향해 비트너는 ‘만약에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초기에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여 주셨을 때 죽어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많이 짓고,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의롭지 못할텐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

에 서게 되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이야기를 삭제하고, 마지막 날에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결국,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정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금, 은,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다. 마지막 날이 되면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이 불이면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불로 인해 없어지게 되지만,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엔 중요한 말이 나온다. 짚과 나무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은 얻는다’고 말했다.

즉,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삶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지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언더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광은 우리의 행위의 깊이 관련돼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그 날이 되면 영광스럽게 남아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라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방해하는 교리가 아니다.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영광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인가. 죄 많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 주님을 위해 일한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으로 다 상을 주신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상을 주신다.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한동대, 디바인워드대와 데이터 분석 및 AI 비즈니스 응용 세미나 성료

2024.6.3.Mon — 8.11.Sun

더 행복한 공모전

공모내용

참여자 대상 육아를 하고 있는 전 국민

공모부문 영상, 수기 (개인 부문), 수기 (회사 자랑)

공모주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고마웠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가정, 사회에서 생긴 재미있는 육아 에피소드 회사에서 생긴 감동적인 에피소드 또는 육아 지원제도로 든든했던 이야기 등

공모일정 접수 기간 6월 3일(월) ~ 8월 11일(일) 수상자 발표 9월 3일(화) 예정 (개별통보) 시상식 일정 10월 중 예정

접수방법 yuk_a@withculture.com

1. <https://blog.naver.com/withcult/223464847401> 혹은 QR코드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공모 신청자와 함께 이메일(yuk_a@withculture.com)로 접수

시상내역 총 상금 1,0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구분	영상	수기(개인)	수기(회사자랑)
전체 대상	1인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80만원	80만원
우수상	70만원	40만원	40만원
장려상	20만원	10만원	10만원

*수기 (회사자랑)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추가 상장 사항 소속된 회사에 커피차를 보내 드립니다. (단 '전체 대상' 이 수기 회사자랑일 경우 대상 수상자에게 증정)

문의처 더행복한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 주소 yuk_a_inquiry@withculture.com
 전화 번호 070-7780-4490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진행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와 파푸아뉴기니 디바인 워드 대학교(DWU, Divine Word University)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및 AI 비즈니스 응용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DWU 마당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차세대 기업가정신훈련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에 이어,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과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세미나는 고급 엑셀 응용, 닥트 언어를 활용한 마이크로러너블 교육, 비즈니스 AI 응용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실용적인 엑셀 응용과 플러터(Flutter) 플랫폼, 닥트 언어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이 비즈니스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바인워드대학교 총장 필립깁스



세미나 단체 사진. ©한동대

(Philip Gibbs) 교수는 개회 연설에서 한동대학교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DWU 비즈니스 및 정보학 학부의 마틴 다니엘(Martin Daniel) 학장 또한 한동대학교의 노력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와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동대학교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 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국제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OECD 인턴 파견 대학 지정(2008), UN ACADEMIC IMPACT 주관 대학 지

정(2011), UN 기탁 도서관 운영 대학 지정(2014), UN NGO 회의 주관 대학(2016), 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IGE) 개원(2019) 등 다양한 국제적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서의 임지를 다져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동대학교의 국제 협력 노력이 실질적인 교육 지원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다.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장요한 기자

수병원, 한일장신대에 인재육성장학금 전달

수병원(병원장 이병호)이 한일장신대(총장 배성찬) 간호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수병원 도서관에서 열린 ‘수병원 인재육성장학금’ 약정식에는 이병호 병원장, 최정민 이사장, 이영진 간호부장, 이현욱 행정실장과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 김윤이 입학학생지원처장, 김지애 간호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병원은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재학생 중 예비간호사로서 모범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병원 인재육성장학금은 병원 명칭을 딴 최초의 장학금이다.

이병호 병원장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잘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좋은 병원이라는 비전으로 날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정신이 한일과 일치한다”며 “5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과 우수한 취업률 등 짧은 기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장신대 간호학과에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배성찬 총장은 “수병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수병원의 후원에 보답하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면서 “수병원 인재육성장학금이 섬김의 정신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수병원은 그동안 한일장신대에 수많은 발전기금과 교내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여러 형태로 후원해왔으며, 2019년에는 장학금 1억 원을 약정하는 등 지금까지 1억4천여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해왔다.

한일장신대 명예사회복지학박사인 이병호 병원장이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병원은 전북지역 주민들의 손과 발, 어깨와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형외과 특화 병원으로, 미세접합수술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202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병원 개설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병호 병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이웃들을 위해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현재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의료협력단(PMIC) 이사, 아시아 이주여성단체 후원이사, 전북대병원 이사,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정형외과 호남지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수부학회 및 세계수부학회 정회원, 예수대학교 이사, 전북연구원 이사, 전주예수병원 동문회장, 전북대총동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 기념 사진(왼쪽부터 배성찬 총장, 이병호 원장, 최정민 이사장) ©한일장신대

장요한 기자

유럽복음주의연맹 “러 점령지 완전 철수해야” 성명

유럽복음주의연맹(EEA)이 러시아 북쪽의 지도자가 “지구 기독교 세계 전체의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말한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동서양의 북쪽주의자들 간의 분열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복음주의연맹(REA) 총무이자, 모스크바 침례교 목사인 비탈리 블라센코(Vitaly Vlasenko)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2022년 2월 전면적으로 변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무력감과 절망을 고백했다.

블라센코 총무는 “어린 상황에서 천국의 신실한 사도이자, 이 땅의 나라의 애국자로 남기는 매우 어렵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보면서도 제정신을 유지할 힘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모든 것이 모호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쟁 해결을 바라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대신, ‘전쟁에서 당신의 나라(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할 것이다’는 말을 들을 때는 매우 힘들다”면서 “이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의 시기 동안에도 “러시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영적으로 보살피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1054년 가톨릭과 개신교의 ‘서방교회와 그리스 및 러시아 지역의 ‘동방교회’가 갈라진’ 동시에 분열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블라센코는 또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가질 수 없고,

정치적 장벽의 반대편에 서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EEA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블라센코 목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북쪽주의자들 간의 동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가 ‘지구 기독교 전체의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EA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블라센코와 러시아 북쪽주의자들의 고뇌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35개 유럽 국가의 북쪽주의 연맹을 대표하는 EEA는 또한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전쟁 종식을 위해 힘써달라는 블라센코의 호소에 주목했다.

EEA는 ‘그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서 “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주, 자포리주에주. ©나무위키

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를 위한 공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2022년에 점령당한 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이 단체는 “러시아의 침략과 점령, 파괴는 불법이다. 러시아는 침략할 명분이 없었다”며 “자주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전쟁에는 모호한 점이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며, 그곳의 북쪽주의 형제자매들을 분명히 사랑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합하고 있다”며 “매우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EA는 “정의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고, 러시아가 끼친 피해에 대해 공정한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는 필요하지만 정의와 진실을 동반한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가, 작고한 지 102년 만에 손자 ‘상봉’

윤계상 선생 하와이 묘소, 손자 윤동균 씨 6월 참배
창원대박물관 ‘구한말 하와이 이민자 조사’로 확인

“미국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가의 손자가 작고한 지 102년 만에 평생 찾았던 하와이 조부 묘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과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난 6월19일부터 구한말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가 고 윤계상 선생의 손자인 윤동균(81·울산)씨와 함께 하와이를 방문해 윤계상 선생의 묘소 참배 및 독립운동 활동지 조사 등 시간을 가졌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윤계상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이 작고한 지 102년 만에 묘소와 활동지를 찾았고, 그 뿌리를 확인하는 감동적인 여정의 끝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창원대 박물관은 지난 2019년부터 하와이 한인 이민자 묘비 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그들의 묘소는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다.

국립창원대 박물관은 무명의 하와이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해 2022년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당시 특별전시회 언론보도를 접한 윤계상 선생의 손자 윤동균 씨가 박물관을 직접 찾아왔다.

이후 계속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해 9월 윤동균 씨가 국립창원대박물관에 족보를 보내오면서 윤계상 선생의 본명은 윤원식, 자(字)는 계상, 1922년 사망해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 커피농장 묘지에 묻힌 ‘윤계상 비석’ 등을 모두 확인했다. 별세 101년 만이었다.

국립창원대박물관의 조사에서 윤계상

선생은 1867년 안동 출생으로 1905년 38세에 하와이로 이민한 후 한인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부회장 역임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밝혀졌다.

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한인 여학원과 한인기독교회를 세우는 등 하와이 한인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당시 호놀룰루 일본영사관은 선생을 ‘불령선인(不逞鮮人,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조선인)’으로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자료가 확인됐다.

이번 하와이 방문 행사에서 후손인 윤동균 씨와 그 가족들은 윤계상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 활동지를 살폈다.

국립창원대박물관 김주용 학예실장은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뿌리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신 끝에 이뤄낸 만남이기에 더욱 뜻깊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윤동균 어른님의 할아버지인 윤계상 선생의 활동 기록을 심도 있게 조사해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동균 씨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평생을 해왔고, 국립창원대의 도움으로 이렇게 묘소를 찾아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소원을 이뤘다”면서 “국립창원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민원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립창원대는 하와이 이민자 조사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창원대박물관 설명에 따르면 1902년 12월부터 1905년까지 7400여 명

의 한인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했고, 대부분이 사탕수수밭에서 힘들게 일하며 고달픈 미국 생활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한인회와 군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자

금 모금에 나서는 등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조국사랑 열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잊히고, 그 무덤 역시 방치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국립창원대 박물관은 하와이 현지조사를 통해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묘비를 탁본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500여기의 한인 무덤을 확인했다.

홍정명 기자



미국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가 고 윤계상 선생의 손자인 윤동균(왼쪽)씨와 가족이 지난 6월 하와이 현지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밀알복지재단, 다보스병원 업무협약 체결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다보스병원(이사장 양성범)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내 나눔활동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시 다보스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다보스병원 양성범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밀알복지재단과 다보스병원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다보스병원은 밀알복지재단에 기부금과 물품 등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다보스병원은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밀알복지재단 인직원의 건강보건을 위한 건강검진 제공 및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보스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보스병원 양성범 이사장은 “밀알복지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병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밀알복지재단은 다보스병원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내 나눔활동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밀알복지재단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MMF 자금융용 7년 연속 수탁고 업계 1위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고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고 1등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고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QR코드로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당자산의 가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의 수익에 따라 투자원금 변동·수익률 및 원금보전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투자계약서를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또 본 상품은 증권업의 직무를 행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청약의 권유는 (간접)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당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총합의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서기 바랍니다. 연·100%과세(예외)는 증권상장지수투자(예외)인 투자원금(예외) 5등급(상위)인, 총보수: 연 0.050%, (이정평가) 0.007%, 집합투자: 0.039%, 수익배분: 0.005%, 사망연금보수: 0.005% 증권거래세, 7%비율에 추가 발생 가능 연·100%과세(예외)인 상사법 제 24-02217(2024.06.10 ~ 2025.06.09)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열린 인터콥 북미선교캠프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

'2024 선교캠프'가 2일부터 5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온타리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터콥(InterCP, 대표 최바울 본부장) 북미 지부 연합으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니어 어른들까지 전 세대 1,500여명이 뜨겁게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주제로 매일 주제 강연과 선택식 강의, 종족별 모임, 간증, 현장 이야기, 페스티벌, 기도회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년 여름에 열리는 북미 선교캠프는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 세대와 다민족 동원이 활성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역이 있지만 주제 강연과 찬양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인 보다 비한국인 참석자가 더 많아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선교캠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동원'이다. 각 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비전스쿨을 바탕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인식이 생겨난 이들이 주 참석 대상이며, 캠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원시킨다. 그렇다고 무작정 장기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런 자원이 있다고 해도 단계별로 훈련을 받고 지역교회를 통해 파송 받아야 장기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 먼저는 기도로 선교를 돕고, 이후 다양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1년정

도 선교를 다녀온 이후 장기선교사로 헌신할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지 결단하게 된다. 장기선교사의 경우 가정이 나가던지 싱글이라면 반드시 팀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인터콥 본부에서 섬기는 강요한 선교사는 집회 중간 짧은 인터뷰에서 "동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원하는 선교사를 받아서 보내는 스타일로 가면 선교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각 지부에서 비전스쿨로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뿐 아니라 관심 없던 사람도 선교를 알게 하고, 이런 캠프를 통해 집회하고 동원이 되면 체계적으로 훈련해 선교지에 보낸다. 특별히 인터뷰는 교회개척을 통한 전방선교, 미전도 선교에 특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훈련이 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 90개국 480개 도시에 비전스쿨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선교캠프의 다민족화, 지속적인 청년 동원의 비결에 대해 물었다. 이민을 통한 자연적 교회 성장이 사실상 중단된 지금, 이는 이민교회의 오랜 과제이자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돌파구로 생각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토종 한국 단체인 인터콥이 처음 북미에 들어올 당시 목적은 한인 이민교회의 2세 동원이었다.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다민족 문화에 익숙하며 영어가 자유로운 이들이 선교에 동원된다면 시급한 선교 현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도가 있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 서, 북미 스태프들이 다민족 교회로 눈을



'2024 선교캠프' 현장의 모습. ©인터콥

돌렸고 오히려 한번도 선교사를 내보낸 적이 없는 미얀마 이민교회, 베트남 이민교회 등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청년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 본부에서는 2019년 이름을 'InterCP International'로 바꾸고 전 세계 민족을 동원에 10/40장 선교를 하자는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북미 지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올해로 41년을 맞이한 인터콥의 다음 세대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들어왔다. 강 선교사는 우선 설립자인 최바울 선교사를 중심으로 1세대 리더십들은 다 한국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한 단계를 시작해 성장시키려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요구되기 마련. 더구나 미전도 종족, 특별히 이슬람권 최전방에 선교사를 훈련해 파송 시키려면 강력한 훈련이 필요했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개

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거칠어' 보이는 방식으로 적지 않은 비난과 비판도 받아왔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선교가 발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강요한 선교사는 "지난 40년간, 1세대들이 사역의 기초석을 놓고 안정화된 이후 2세대 리더십은 분야별, 은사별 리더십을 세워 수평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이 하나의 카운슬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이미 7-8년 전부터 30대 후반의 젊은 세대가 1세대와 같이 일하고 있으며, 향후 5-10년 안에 1세대들은 다음 세대에 리더십을 이양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리더십 이양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충당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 선교에 대한



2024 선교캠프 중 열린 목회자 간담회에서 목회자들은 인터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인터콥

헌신과 재정적인 헌신이 연결되는 1세대들과 다음 세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요한 선교사는 이에 대해 인터콥은 사역을 강하게 하는 단체이지 재정은 각자 알아서 하는 자비량이 기본이라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선교사의 선교 훈련은 인터콥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사역을 위한 의도는 좋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어쩌겠든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있어야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 이양에서 사역적인 것을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지 재정은 자비량이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최바울 선교사를 비롯해 본부의 선교사들도 모두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불거진 최바울 선교사의 재정 남용 및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었다. 교회나 단체가 성장하면서 이런 저런 논쟁이나 의혹이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결국 수면 위에 드러나고 근거 없는 의혹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니 텐 굴뚝에 연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강요한 선교사는 "결론적으로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콥 재정을 횡령해 사유화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횡령했다면 비밀장부가 있던지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제기된 문제의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재정 자료에 공개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선교사들이 본부의 의도나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가 많았다. 최근 보도된 한 언론의 보도에서 제기한 건물 일부 매매 건은 이사회 논의와 결의를 거쳐, 법무사를 통해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열방센터 인근 부동산 농지는 단체 소유이지만, 단체가 농지를 직접 매매하기 어려워 부득이 농업인으로 교육을 이수한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게 됐다. 열방 센터 내 최바울 선교사의 주택 또한 센터 내 선교사들과 스태프들이 편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재

정 실무자들이 합의해 땅을 샀고 자재는 본인이 직접 구입해 집을 짓고 지내는 것이다"라며 이외에도 조목조목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사역을 위한 의도는 좋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어쩌겠든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있어야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 이양에서 사역적인 것을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지 재정은 자비량이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최바울 선교사를 비롯해 본부의 선교사들도 모두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불거진 최바울 선교사의 재정 남용 및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었다. 교회나 단체가 성장하면서 이런 저런 논쟁이나 의혹이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결국 수면 위에 드러나고 근거 없는 의혹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니 텐 굴뚝에 연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적지 않은 논란과 의혹 가운데서도 캠프 현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한 명의 선교사라도 더 발굴해 10/40장으로 내보내려는 인터콥 본부와 북미 지부 관계자들의 열정은 순수하다.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때로는 쓰리고 아플지라도 이들은 그저 주어진 세계 선교 사명에 집중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다.

박현희 기자

신간

박경호 목사 '히브리어&헬라이어 번역성경' 8종 출판

원어 단어의 뜻 변형 없이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

박경호 목사가 최근 『박경호 히브리어&헬라이어 번역성경』8종을 출간했다. 박 목사(Hebrew & Greek Translation Publisher Inc)는 원어 성경 연구가이며, 20여 년이 넘게 순수 번역과 순수 진리 탐구만을 목적으로 원어 번역에 끈질긴 노력과 연구에 매진하여 현재까지 『NEW 4복음서』와 『NEW 요한계시록』, 『로마서』, 『창세기』, 『히브리서』 등을 출판했다.

히브리어 번역성경은 전통 벤카임 마소라본문으로(제2대 랍비성경, Ben Chayyim Masoretic Text, 1524-25), 헬라이어 번역성경은 공인성경본문에 해당하는 스테판(1550년)으로, 히브리어/헬

라이어 한 단어당 한글 한 단어로 고정하여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 최초 11 대응 방식을 통하여 원어 단어의 뜻이 변형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여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다. 11 대응 번역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11 사전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신약성경 7권인 『박경호 헬라이어 스트롱사전』을 수록하였다.

히브리어의 경우, 한 단어가 10-30개의 한글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어/헬라이어 한 단어를 새롭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한글 한 단어를 선정하고 모든 문장에서 고정적으로 매칭시키는, 기존 한글 성경과 영어성경의 오번역을 바로잡은 완전 직역에 성공하였기에, <전

무후무한 성경>이란 부제목을 달았다.

<전무후무한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한 단어를, 모든 뜻을 아우르면서 어떤 문장에서도 어색하지 않는, 더욱 정확한 의미로 재규명시켜, 결국, 원어와 거의 동일한 뜻과 내용으로 변환시킨, 세계 최초로, [성경사본과 동일한 번역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뜻을 함축하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며 그 찾아낸 단어가, 모든 뜻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성경 각 권은 문장



의 의미에 따라 장과 절을 새로 구분하고, 각 장에 제목을 붙임으로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성경으로서,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다.

박경호 목사는 "향후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박경호 헬라이어 번역성경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이어 번역성경』을 영어 및 전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박경호 히브리어&헬라이어 번역성경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전했다.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이어 번역성경』 8종은 \$300 USD에 판매하고 있다. 구매문의 (1-906-232-3284) 또는 cmo82@naver.com. 김민선 기자

자연
내림

구매 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술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인도 총선 결과가 인도 기독교 박해에 미칠 영향은?”

GCR “많은 인도 기독교 지도자, 큰 안도의 한숨” 지난 20년간 약 3천만 힌두교도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어

지난 4월부터 6주간 치러진 인도 총선 결과와 향후 5년간 인도의 기독교 박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간신히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최근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GCR)는 이번 선거 결과가 박해받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다.

GCR 글로벌 전략 및 연구 책임자인 론 보이드 맥밀런(Ron Boyd-MacMillan) 박사는 “힌두 민족주의 BJP당은 다는 다수당이 아니므로, 모디의 임기 중 처음으로 더 많은 지역 정당과 연합해야 한다. 그것은 많은 것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모디는 BJP 주도 연합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슬로건(Abki Baar 400 Paar)은 ‘이번에는 400석을 넘어선다는 의미였다’며 ‘모디는 BJP가 지난 선거에서 303석이 아닌 37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에) 400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인했다. 솔직히 (400석은) 좀 비현실적이었지만, 350-370석은 확보할 것으로 확인했고, 출구 조사는 압승을 확정하는 듯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JP는 직전 303석보다 63석이 줄었고, 단독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72석보다도 적은 240석만 확보했다. 대신 야당 연합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233석을 얻어, 어느 때보다 BJP가 다른 정당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맥밀런 박사는 “모디는 이번에 ‘무적의 아우라’가 순간순간에 사라졌다. (그동안) 모디는 거대한 개인 숭배를 하게 했다. 그 이전의 BJP는 강경한 힌두트바(힌두 근본주의)의 매력에 제한적이어서 항상 파트너를 찾아야 했는데, 모디는 이번에 포퓰리즘을 더했다”라며 “그는 매력적인 의사소통 기술로 많은 최저 소득층과 하위 계층을 설득하여 그에게 투표하게 했고, 그 결과 BJP가 두 번의 선거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대부분 힌두교도가 힌두교 우월주의 서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이념은 높은 계급인 브라만주의적이어서, 인도의 공동체적이고 종교적인 비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을 끌어들이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며 “모디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그의 성격이었다. 또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인도를 변형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또 무슬림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고, 기독교로의 개종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모디가 그러한 감각을 잃었고, 저소득층이 투표로 그를 심판했음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당내에서 모디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봤다.

맥밀런 박사는 “BJP가 집권한 인도에 대해 자

주 듣는 단어는 ‘기업화’라며 “이는 국가 기관이 기업 엘리트, 즉 구자라트주의 모디의 친구들에게 종종 매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기업에 사로잡혔다. 즉,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로 미디어를 살펴보면, 모디의 두 명의 억만장자 친구가 인도 미디어의 82%를 통제한다. 세계 역사상 두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보고 읽는 것을 통제할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새로운 미디어는 BJP와 모디에 야심하듯 하여, BJP가 압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당의 노선을 따르는 데 너무 바빠다. 기업화된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 미디어들은) 더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안전하고 이념적인 슬로건을 고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BJP가 지지를 잃은 또 다른 원인에 대해 “하나 저소득층이 BJP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히 야당이 경고한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아래에 3억 명의 달리트(불가촉천민)가 있고, 추가로 기타 3억 명의 소외 계급이 더 있다. 이들 집단의 실업률은 매우 높았다”라며 “그들은 더는 BJP에 많은 표를 던지지 않았고, 특히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의 힌두 민족주의 중심지에서는 더 그랬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BJP가 인도를 ‘힌두 라슈트라(Hindu Rashtra, 힌두 민족주의), 또는 힌두 국가로 선언하기 위해 헌법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헌법은 국가가 인도의 다양한 종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공격 받는 건전한 세속주의다. BJP의 속임수는 선거 운동 직전 의회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하기 위해 허황한 이유를 조작하여 역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2014년 모디 집권 이후 지난 10년간 인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자로, 심지어 냉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그가 새로운 지배 계급, 심지어 새로운 인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다”며 “민족주의가 전면에 나서면서 ‘힌두교적’과 ‘인도적’의 구별이 어려워졌고, 상당수의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적 소외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맥밀런 박사는 “현장에서는 더 심하다. BJP의 통치가 종교단체에 대한 무책임한 폭력의 경계를 촉발했다는 데 의의의 여지가 없다. 작년 한 기독교 지도자는 BJP는 증오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인도복음주의연맹이 목사와 교회에 대한 폭력 사건을 추적했는데, 작년 사상 최고인 601건의 사건을 기록했다. 인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모디와 BJP 정당의 집권 아래에서 인도



모디 총리의 힌두 근본주의 우익 성향의 BJP 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인도 기독교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GCR

BJP, 사회 핵심 기관 장악하고 하위계층 공격 위험 우려 RSS, 강경 힌두트바 지지 강화 위해 마을 차원 움직임 및 인도교회, 기독교 박해에 효과적 대응 위한 조율 필요해 기독교-민주주의 연결 회복하고 전술적으로 현명해져야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맥밀런 박사는 “문화적 소외 외에도 두드러진 BJP의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외국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 기부 규제법(FERA)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 비정부기구(NGO)가 해외에서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더힌두(The Hindu) 신문은 지난 9년 동안 16,000개 이상 NGO가 이를 위반하여 FERAs 등록이 취소됐다고 했고, 이로 인해 월드비전, 캠페인 같은 주요 기독교 자선단체는 대부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전략은 ‘선교’ 개념을 모호하여, 유명한 기독교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조작한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킨다고 거짓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개종에 대한 대가로 음식이나 원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또는 기독교인은 인도를 점령하려는 서방 세력의 요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한다. 목사에 대한 거짓말은 대개 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실제 증명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퍼뜨리며 때로는 사역을 중단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밀런 박사는 “물론 인도는 넓은 곳이고, 종교적 폭력은 불규칙하다. 하지만 폭력이 터지면 끔찍하다”며 “작년 우리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기독교 집단인 쿠키족으로부터 땅을 빼앗으려는, 힌두 민족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계획을 보았다. 수도 임팔에서 이를 동안 조직적인 폭력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십 개의 교회가 불타고 6만 명의 쿠키 기독교인이 영구적으로 이주했다”고 말

했다. 그는 “가장 거북한 것은 경찰이 조직적인 폭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다가, 주를 담당하는 BJP 당국의 전화를 받고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마니푸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인도의 기독교 박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헌법을 변경하려는 의제는 일단 중단되었고, 국가로서 형식적, 복수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BJP의 선거 파트너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을 것이다. 그중 두 명은 기독교와 무슬림 공동체가 많은, 힌두트바 이념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왔다”며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BJP의 대응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밀런 박사는 “첫 번째 BJP는 교육, 사법부, 미디어 같은 사회 핵심 기관을 은밀하게 장악할 것이며, 실제 그들의 노력을 두 배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들은 이러한 영역들을 공동화하고 정부를 책임지지 못하도록 권한을 손상시켰다. 예를 들어 FERAs 등록이 취소된 16,000개의 NGO를 누가 복직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전국자원봉사자협회로 번역되는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는 하위 계층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SS는 세계 최대 극우 준군사 NGO이며, 힌두트바 이념의 지도 세력으로 60,000개의 회의에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욕을 당했다”라며 “RSS는 특히 달리트가 BJP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BJP가 잘하지

못한 지역으로 돌아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강경 힌두트바 메시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SS는 2003년 총선에서 예상치 못하게 패했을 때에도 마을로 퍼져나가 국가의 주요 교육을 제공하며 교회를 대체했다. 이는 2014년 모디의 성공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디는 8살 때부터 RSS 회원이었다. 맥밀런 박사는 “최근 바라나시에 사는 RSS가 시골로 팀을 보내 힌두교도들에게 마을의 새로운 기독교인에 대한 불만을 경찰에 제기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힌두트바의 이념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모디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맥밀런 박사는 박해받는 교회에 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인도는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들로 가득하지만, 지금까지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계급과 조직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지만, 대부분 교회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델리에서 한 인도교회 지도자가 우리는 인도의 상황에 불평함을 느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편안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 국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며 “델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 지도자들은 모디 총리가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에게 굶신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러워했다. 인도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연결을 회복해야 한다. 전술적으로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맥밀런 박사는 마지막으로 “(인도) 기독교 대학의 한 고위 지도자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2.3%에 도달하는 데 200년이 걸렸고, 7%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0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에서 주로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큰 (기독교)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라며 “7%는 엄청난 수치이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인도의 기독교회는 1억 명이 넘을 것이다. 대부분 학자는 그동안 (인도 기독교인) 약 7천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약 3천만 명의 힌두교도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개종자들은) 기독교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그리스도 추종자로 불린다. 많은 경우 그들은 낮은 카스트이다. 이 새로운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치유자로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가 제공하는 평등을 즐기는데, 불가촉천민들이 사원에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힌두교와는 대조적이다. 모든 사람은 기독교 예배에서 평등하다”며 “그들은 존엄성을 얻지만, 그것은 치유와 평등 다음에 온다. (인도교회)는 가장 큰 추세 중 하나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회, 중국교회 성장과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이치희 기자



ULSAN PORT

UP

울산항 UP, 대한민국 경제를 키웁니다

- ✓ 국내 1위 · 세계 4위 동북아 최대 에너지 허브 항만
- ✓ 정유 · 석유화학 · 조선 · 자동차 산업발전 선도 항만
- ✓ 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수출입 종합 서비스 제공 항만



울산항 Connect Up
https://www.upa.or.kr

美 친생명 운동가, 낙태클리닉 앞 시위 이유로 보호관찰형 선고 받아

11명의 자녀를 둔 독실한 기독교인 남성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임신중절 병원 접근을 차단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형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폴 본(Paul Vaughn)은 2021년 병원출입 자유법(FACE)법을 위반하고 권리에 대한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이 1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2022년 10월, 본은 2021년 3월 15일 내슈빌 교외 줄리엣 마운틴에 소재한 낙태

클리닉 출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한 명이었다.

2022년 10월 3일 미국 법무부(DOJ)에 기소된 후 FBI는 이른 아침 그의 집을 급습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을 체포했다.

본은 체포 후 자녀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고, 연방 관리들과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언제든지 내려올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라이어에 따르면, 판사는 본의 선고 공판에서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시위가 비폭력적이었으며 아무에게

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 한다.

또한 판사는 본의 행동이 그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가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미해군 재향군인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더 넓은 영적 전쟁 속의 전투로 규정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뻐한다"라며 "이것은 핵심적으로 영적 싸움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라는 강력한 변호사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

들은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거짓에 절할 수 없다"라며 "법은 진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극적인 입법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 미국을 괴롭히는 거짓 이야기는 우리가 맞서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본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생명권 옹호 시위자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FACE법이 뒤집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 양원 모두에서 FACE법의 합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본을 대리하는 데 도움을 준 비영리 종교자유 로펌인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본이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환영한다"면서 본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 수석 변호사 스티브 크랩튼은 "법원이 오늘의 선고 심리에서 폴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폴은 가족과 함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해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유죄 판결은 여전히

깊은 불의"라고 말했다.

크랩튼 변호사는 또한 본의 심리가 1776년 대륙 의회가 미국의 자유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날인 7월 2일 열렸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국가 헌장의 기념일에 폴 본과 그의 동료들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옹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바이든 법무부가 평등적 생명옹호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화되고 증거 없는 혐의는 결코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경 기자

한국계 미국인 오지현 목사, 미 장로교 정서기 선출

한국계 미국인 오지현 목사가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사무국 정서기(stated clerk)로 선출됐다.

한국에서 태어나 캔자스에서 자란 오목사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226회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420대 2로 선출됐다. 그녀는 앞서 총회 사무국 중간 협의회 사역 책임자로 일했다.

장로교 통신(Presbyterian News Service)에 따르면, 오목사는 이 교단의 최고 교회 직책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며, 여성으로는 두 번째다.

투표 실시 전 연설에서 오목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 습관, 가정을 식별하고 버리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정리"라며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한때 유용했지만, 상황이 달랐을 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을 애석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희망적 가능성과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서기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샬리 왓슨 목사는 "위임회는 그녀의 지성과 경험의 깊이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기로 재임한 J. 허버트 벨슨 2세 목사는 2

번째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인 2023년 6월 30일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벨슨 목사는 2016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제222차 총회에서 정서기로 선출되었고,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정서기(stated clerk)로 선출된 오지현 목사가 7월 1일(현지시간) 제226차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Vimeo/Presbyterian Church (U.S.A.) OGA

2020년 온라인으로 열린 제224차 총회에서도 반대자가 없었다.

벨슨 목사는 "자음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기에 가족과 교회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女 허들 400m 세계 신기록’ 선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

2024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기록을 경신한 미국의 한 육상 선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시드니 맥클로플린 레브론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올림픽 육상 대표 선발전을 마친 후 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신기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맥클로플린은 첫 허들을 넘을 때부터 선두로 나섰으며, 마지막 10번째 허들을 넘을 때는 경쟁자도 없었다. 그리고 50초 6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자신이 종전에 세운 세계기록 51초 41을 0.73초 앞당긴 것으로, 여자 400m

허들에서 51초의 벽을 넘은 최초의 선수가 됐다.

맥클로플린이 자신의 신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400m 허들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을 경신한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20)는 말씀을 올렸다.

이번 대회 우승 후에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아제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믿음과 신념에 집중했다. 기도의 양과 노력은 50초 68로 하나님 은혜의 최고에 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표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경계를 계속



시드니 맥클로플린 선수. ©NBC 뉴스 유튜브 브영상 캡처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명경 기자

‘마크롱, 프랑스 총선서 ‘악몽’ 피했지만 고난 직면’

7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결선 투표 결과를 두고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앞으로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프랑스24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국가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해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비행할 준비를 하는 동안 여러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이제 스스로 통치권이 있다고 믿는 좌파, 마크롱 대통령 자신을 향한 인기 저하, 가장 영향력 있는 연합 일각에서 제기된 공개적 반대 의견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세력은 이번 입법 선거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 부활한 좌파 세력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승리한 극우 정파는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세했던 참패 전망을 깨뜨린 점을 짚었다.

입소스(ipsos) 조사에 따르면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등이 포함된 신인민전선(NFP)이 177-192석으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 연합 앙상블(ENS)이 152-158석,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텔레미가 이끄는 국민연합(RN) 세력은 138-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동 기자

이스라엘 국방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해도 헤즈볼라와 싸움은 계속”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가자 전쟁에 개입해 온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경한 북부 헤르몬

산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것은 헤즈볼라가 우리와 합의한 게 아닌 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군(IDF)의 공습으로 헤즈볼라가 여단장급 최소 13명, 사단장급

3명의 지휘자를 포함해 450명의 대원을 잃었다며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갈란트 장관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려 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근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N°20 건강한 인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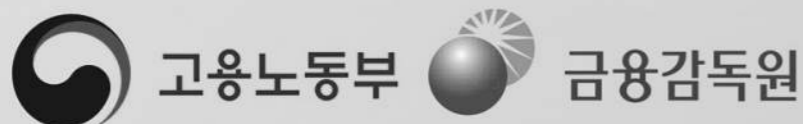
GOOD

목례로 인사

BAD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일어날 시간이야!”

하나뿐인 내 편과 함께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세요



하나은행은 잠자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함께 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란 직장의 폐업 등으로 가입자가 수령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아래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QR코드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www.fss.or.kr)



※ 하나연금닷컴은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www.pension.hanabank.com), 하나원큐 앱을 참조하시거나 퇴직연금전용 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4062호(2024.05.22) / CC브랜드240523-0286

최상목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신속하게 추진”

물가안정·경제활력 제고 등 종합 경제정책 방향 제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정책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용 수단을 동원해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 부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춰드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약화회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해 30만 명을 지원하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판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식품 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관 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추진방안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시장 위험요소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개혁, 기업밸류업, 기업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국회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시장 위험요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내래 기자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 논의 재부상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은 택시장 회복세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으로 대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중히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전세대출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은 아니

다”라며, “연초 발표했던 대로 DSR 적용 추진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DSR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에게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산정해보라는 요청을 했다. 이는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 대해서도 대출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차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 때, 원금은 제외하고 이차만 DSR 산정 시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내래 기자

원·달러 환율 하락세,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전문가들, 이번 주 환율 변동성 높을 것으로 예상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겹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1377.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경제 둔화를 시사하면서 달러 가치가 약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 수치는 20만6000명을 기록했지만, 4월과 5월 수치가 하향 조정되었고 실업률은 4.1%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또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 소비자지출(PCE)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와 2.6% 상승하며 둔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로 인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7% 후반대로 상승했으며, 달러지수도 104선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367-1383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 하단을 1360원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엔화의 약세와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열리는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 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 미국 소비자물가 결과가 달러화의 추세적 약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

통위 결과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내래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삼노, 3일간 총파업 돌입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중 파업으로 우려 증폭...

노사 간 합의점 도출 주목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삼노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의 전면 파업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삼노는 8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사업장 HI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총파업 투

쟁은 우리 조합의 존립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며 파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후 올해 1-2분기에 흑자로 전환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2만9913명으로,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24%에 해당한다. 특히 상당수 조합원이 반도체 부

문 소속으로 알려져 있어, 파업이 반도체 생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사 간 협상은 지난 1일 실무협상과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서 일회성 여가포인트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축소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삼노는 1차 총파업 이후 사측의 전환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추가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내래 기자

홍명보, 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울산 현대의 홍명보 감독을 새로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8일 오전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기술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의 근거로 8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그 중에는 축구협회의 철학과 게임 모델에 부합하는 플레이 스타일,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속성 및 연계성,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성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의 K리그 우승 2회, AFC 챔피언스리그 4강,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거쳐 2027 아시안컵까지로 정해졌다. 이 기술이사는 유럽 출장 중 외국인 감독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귀국 직후 홍 감독을 직접 만나 설득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선임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 국가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발전을 위해 몇 차례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새 감독 선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3 AFC 아시안컵 우승 실패 후 우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겸직했던 축구협회는 5개

월간 새 사령탑을 모색했다. 그 사이 황선홍 감독과 김도훈 감독이 임사로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시작으로 대표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한국은 B조에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경쟁하게 된다.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순한 조편성을 받았지만, 모든 상대가 중동국인 만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홍 감독은 원팀 확립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마음을 들지 않은 팬들도 있었지만 홍명보호를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 축구는 국가대표 레전드 출신인 홍명보 감독과 함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게 된다.

이내래 기자

동아세약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허약체질·육체피로·권태·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민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조금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이가 들면서 가끔 어릴 적 생각을 상기(想起)해 보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문득 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왜소하고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머리가 멍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죽고 싶다"는 말을 가끔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신다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 성실은 착함이었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제가 성실이란 단어를 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해야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저는 그 당시 큰 꿈을 가슴에 품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성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을 무기로 삼자"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물론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 자신을 성찰할 때마다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에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총명한 어린이가 아니었기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제가 무기로 삼은 성실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실은 좋은 성품입니다. 성실은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성실(誠實)이란 말은 "정성(誠)에 열매(實)의 합성어입니다. 성실(誠實)에서 성(誠)이라는 한문은 "말씀(언어)에 이룰(성)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성(誠)이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관성을 통해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誠實)에서 실(實)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어 집안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實)이라는 한자는 열매와 뿌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성실은 제가 강조하는 "뿌리 깊은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에게 배우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무는 폭염을 견뎌낼 때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무에게 배우는 성실은 꾸준함입니다. 한 길을 오랫동안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영적 성숙이란 단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한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이름은 니체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니체는 "하늘과 땅에서 본질적인 것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다. 이

는 항상 결과적으로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신이 니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은 아주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일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성경과 함께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성실함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실을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성실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로버트 클리어는 "성실은 하루하루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다킨스는 "성실은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빈 스톰바르트는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성실은 지속적인 성공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삼상 16:7).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성실함을 증언합니다. "이에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시 78:72, 개역한글). 조금 느리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도 시작한 일을 마치십시오. 공부를 시작했다면 시작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우선 작은 일부터 끝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무슨 일든 끝맺음을 잘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성실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만 큐티입니다. 어느 날은 큐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기에 먼저 큐티하면 우리는 매일 큐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듯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신애라 집사님의 책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를 추천하기 위해 타고된 원고를 읽는데 남편 차인표 집사님이 매일 성실하게 아침마다 운동 가는 일을 지난 30년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했으며, 그 비결이 운동하기가 귀찮아서 빨리 해치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가 루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미리 한다고 세뇌한 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지금도 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고, 또 그의 책이 이번에 옥스포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휴일에 마음을 다잡고 해치울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루틴이 됩니다. 예를 들

키워서 남 주기를 잘 합시다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촌교회



이 성가는 교회를 떠나 타 교회로 가겠다 했을 때 솔직히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키우느라 들어간 돈과 애 쓴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좀 쓸만해지니까 떠난다고!?" 이해하는 척, 쿨한 척 떠나보냈지만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결과적으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몸(?)도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돈 목사님 부부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대화 중에 결혼한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었습니 다. 찬양팀에 들어가 바이올린도 켜고 찬양사역도 한다고 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쳐서 어디 서든 제 몫은 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내 자녀들이 혹시나 남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를 찾지 못해 방향하거나 교회에 참석해도 겉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제 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전후로 양쪽 부모님

"죽워서 남(가)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것을 보상도 못 받고 빼앗긴 허탈감에 대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느낄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워서 남 주기"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깊은 의미를 못 깨달으면 신앙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좇으면 하나님에 비하면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눅 12:21).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송재호 목사
함평루아한인교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미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있을 때에도 자녀만이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집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고, 천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나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참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달려가 와락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는 순간 아이는 두려움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누구며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 부모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한계상황에 부딪혔을 때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굶어 점 등을 미신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에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문 열어 놓아 들어오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문 열어 놓고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오늘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김한오 목사
베델교회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보냈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함까지 느껴집니다. 새벽기도 후 아무도 없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쉬어라' 마음 먹었는데, 나의 시간은 휴일이라고 일주일 8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에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저에게는 목요일에 해야 할 루틴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영표씨

가 청소년들에게 강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은 항상 겹칩니다. 이 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훗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하는 강연 같았습니다. 나는 젊은 이도 아닌데, 6학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하고 싶은 원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이 휴일에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중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오늘 칼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의 말을 응용하여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훗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루틴이 됩니다. 예를 들

면 큐티입니다. 어느 날은 큐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기에 먼저 큐티하면 우리는 매일 큐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듯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구원론: 육신을 죽이라(3)

최덕함 박사

Th.D. 바로신개척교회
담임목사



3.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를 했고 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가슴을 치며 나쁜 습관의 죄들을 멀리하고 없애려 해도 낮이나 밤이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짓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중에 있습니다. 목표지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 방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불순물과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즉시로 치워진다 해도 하루아침에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 된 길에서 멀어진다 해도 여전히 죄를 향한 강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러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도사린 죄

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은 오직 이 일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인 실존적 사건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새롭게 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죄의 문제 해결은 ‘자기 부인’ ‘옛 사람’이 십자가의 길 못 걷게 해야 자아가 죽어야 새롭게 살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길지어다”(롬 6:11)

한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오늘 소개한 본문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 2:20)고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자아의 죽음을 믿고 선언할 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한 본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육신을 억제하는 것, 즉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치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과거부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사에는 진짜로 이런 일을 추구한 교파나 일단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과 절연하고 육신을 죽이기 위해 기둥 위에다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기압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 진짜 못이 박히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육신을 죽이라 했더니 자기 몸을 상해하거나 몸을 수련한답시고 극기 훈련한다고 가족도 버리고 산속에서 무엇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수도사들은 육체의 일을 멀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실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고 고행을 거듭하며 자기 몸을 저주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몸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초도덕적인 것’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너희 육신을 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뼈와 살과 피를 없애거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제약하고 오직 금욕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 등의 모든 죄악 된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 뽑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뿌리 채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얇은 이를 뽑아버리듯 모든 악의 찌꺼기들이 일거에 사라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그렇게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육신의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존재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거룩한 신앙의 길을 방해합니다. 바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괴롭힙니다.

한 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계속>

社 說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리스크인가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최근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연일 ‘후보교체론’이 부상하는 등 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모습이다.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수차례 말을 더듬는 등 실수를 연발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기를 넘겨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행을 돈으로 압박당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과 이민, 인플레이션 상승 등 바이든 정부의 실패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였다. CNN 조사에서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는 응답이 67%나 됐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 사이에서도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낙제점을 받았다. 급기야는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대선 포기 압력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최근 필라델피아의 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신은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신앙의 힘을 느껴왔다”며 로마서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하건대 우리가 단결하면 미국의 미래는 이보다 낙관적일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고 재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공개된 ABC 방송 인터뷰에선 “나보다 대통령이 되거나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사퇴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등 미국 내 기독교인의 표심에 기대하는 잇단 행보에도 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맥아더는 목사인 최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이는 신의 심판이자 사회적 도덕적 타락의 반영”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다.

크리스천 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맥아더 목사는 “성적 부도덕, 동성애적 부도덕, 타락한 마음으로 돌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다”라며 “미국은 도덕적 선택의 결과를 거두는 나라”라고 강조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트랜스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이후 미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적인 가톨릭계에선 동성애와 낙태권리 확대를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바이든은 지난 2019년 1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대선 유세 때 그 지역의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도 성찬식을 거부당한 일이 있다. 당시 주임 신부는 “영성체는 신과 신자,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낙태를 지지한 사람이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며 성찬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복음주의 진영과 전체 없는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집권 당시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만들어 지난 2022년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만에 폐기하게 만들었고 주요 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를 포진시킨 것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분석된다. 트럼프의 이런 확고한 ‘우클릭이 복음주의 진영의 신뢰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가톨릭계로부터 ‘이단아’ 취급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미국 유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도단긴 이른다. 다만 부도덕한 구설수에도 기독교계의 절대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낙태 동성애 이슈로 자신의 신앙의 기반인 가톨릭계에서조차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무신론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 안보나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을 금전적 이해관계 논리로 접근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당장 ‘안보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복음주의의 교계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인격이 아닌 성적 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낙태 등 생명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복음적 가치에 맞느냐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을 무턱대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안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낙태와 동성애 확산 반대 등 트럼프 집권 2기의 로드맵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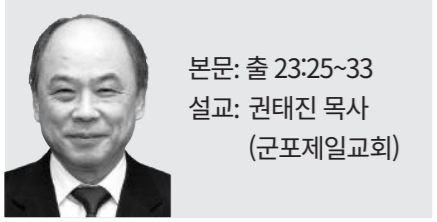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보호 받을 자의 삶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기는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세계 선교를 하고 믿음을 지켜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의 시간이 하루를 형성합니다. 지구는 바다와 육지로 형성되어 있고 사람은 악인과 선인으로 분류합니다. 영도 악령과 성령으로 나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는 빛과 어둠 중 한 곳에 속하여 살아가고 행한 대로 평가받아 누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 속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종족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도 그들을 보고 계셨고 악한 왕이 무자비하게 박해할 때도 항상 보호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할 때는 산파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감동시켜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보호하며 자라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물이 땅 밑으로 흐르며 숲을 가꾸듯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를 이끄시고 신권과 인권을 지키십니다. 절대로 악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혼돈이 때로는 선인에게 기회를 주고 악인에게에는 실패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미래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에서 살며 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

이니라”(출23:16)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마음을 드림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절기 때 농사한 것을 가져오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출23:22)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와와는 우리의 힘 이외, 요새요, 지혜요, 권세입니다. 1.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출23:25)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병들지 않을 환경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자 했으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라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게 이르

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15:25-26) 하나님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치료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2.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출23:26)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날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벌을 보내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출23:28-29)

그러나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할 수 있지 너희가 번성하는 대로 조금씩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천천히 주시는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네 땅에 마무리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울무가 되리라”(출23:33) 사람은 악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방인을 철저히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노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샅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여자 기생 들릴라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아합왕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

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왕상21:23) 그러나 수산 궁의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티를 만나 선한 왕으로 유다인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보호받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으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시1-6) 우리는 한 해의 절반기를 보내고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헤아리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보호받습니다. “그들이 대담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됨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8:33-36)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하반기를 잘 준비하여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무원연금, 올해 ‘7조4천 억 적자’ 예상…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 시급

공무원연금공단-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5.8조 적자보다 적자폭 26% 커져 보험료 수입 저조, 보수 인상률도 낮은 수준 국가보전금도 한계, 내년 10조 투입

올해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이 적자폭을 확대하며 7조4000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적자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는 7조389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5조8766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25.7% 증가하며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폭 확대는 보험료 등 수입의 경우 17조5490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연금급여 등 지출은 24조9386억원을 기록하며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총 128만830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

세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지출 요인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등 퇴직자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역대 최대인 65만9000명을 기록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은 2022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간이 길수록 많으며, 월평균은 2022년 기준 268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은 저조한 상태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정부와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며, 현재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8%(정부 9%, 가입자 9%)다. 하지만 최근의 보수 인상률은 소비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기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연금액에 연동되는 물가 상승률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만 봐도 보험료 수입은 3.7%에 그치는 반면, 연금액 지출은 8.0%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공무원연금 적자에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첫 적자는 1993년 65억원이었다. 하지만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세금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보전금은 5조8766억원으로 6조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8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내년도 보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그간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쳤으며,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지금의 틀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개혁은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속도를 내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 종료로 흐

지부지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적자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등 조정을 해야 할 때인데,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미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적자 보전과 국가보전금 감축을 위해 기수급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개혁 이후 2016-2020년 연금액과 물가 상승률 연동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적이 있다”며 “현재 기수급자들이 관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차희 기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담당목사 이영희
· 복음교회 목회자 20년
· 영성대학 교수
· 한국교회총연합회 총재
· 기독교 영성 및 재직훈련 전문강사
· 800회 이상 부흥회 인도
· 미사람 교회와 정제원 교회 협력목회
·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 성령기도원 원장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품으로 은퇴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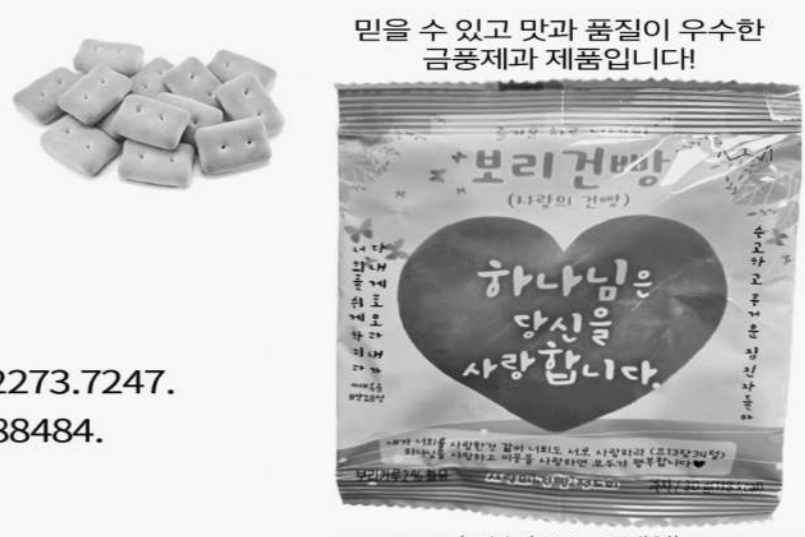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부모님께 효도는 삭개오우슬환으로

삭개오 우슬환은
무릎, 관절, 허리, 연골에 도움
남성·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리집 4번 타자

당귀산수유환은
심장, 신장, 간, 기관지, 폐에 도움

삭개오와 뽕잎환은
중풍, 고혈압, 당뇨에 도움

※ 위 3가지 식품은 당귀산수유환은 약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 건강장생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 목사 올림

삭개오와 뽕나무 건강기능식품
상담 및 부흥성회 문의: 조삭개오 목사
010-9603-0691
간증집회 문의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MGBC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 방송은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영의교회 담임목사
대전기독교대학총학생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중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신간 '하나님'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 귀중함을 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배우는 일도 똑같이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신론' 또는 '신학 본론'을 공부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가 더 자라게 한다.

저자 리처드 프랙 총장(서드 밀레니엄 미니스트리즈)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수 세기 동안 강조해 온 교리를 배운다면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

님의 계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밝히셨는가? 어떻게 밝히셨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신론의 모든 측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라는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공개로서 언제나 인간의 관점에서 주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주어진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많은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와 몸무게를 재거나 시험관에 넣어 검사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초월적이셔서 우리를 훨씬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 즉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간의 관점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감추어져 계신다. 조직신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계시의 '신인동형론적' 특성이라고 말해 왔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로 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공개하셨다. 성경에는 적어도 네 종류의 신인동형론적 계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좁은 의미에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에 비유한다. 많은 구절이 하나님께

눈과 귀와 코, 손과 발, 다리가 있다고 말한다. 전체 성경은 이런 신인동형론을 은유로, 즉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눈이나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또한 판단하시고, 질문하시며, 상의하시고, 감정을 느끼시며, 꿈같이 생각하신다. 인간과 무척 비슷하게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뜻을 돌아키신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자기 계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인정하지만 끝로써서 1장 15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자신을 알리신 궁극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한,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 계시와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박영선의 누가복음 1

누가복음은 4 복음서의 하나로, 사도 누가가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담임)가 2010년 2012년까지 한 누가복음 설교를 글로 펴낸 도서로, 2013년에 출간된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의 개정판이다. 씨 뿌리는 비유, 오병이어 기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을 주제로 한 말씀들이 담겨 있다.

함이나 권력이 아닌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를 소유한 자의 낙함이란 무엇인지 누가복음에서 확인해보고자 저자는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만나면 많은 것을 안다. 오죽하면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그렇

다고, 보아서 아는 것이 전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는 말이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생애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헛된 기대를 하고 그 래서 절망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돌아와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워한다. 그동안 자기들이 만난 분이 자기들의 이해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런 제자들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많이 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간이라는 차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어떤 내용을 한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여러 경우에서 겪어 봐야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을 내가 겪게 되는 여러 현실 속에서도 확보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에 있었을까, 어떤 현실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한다. 어느 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내 믿음과 기대와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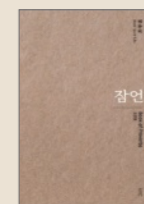
7월, 작가들의 말말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꼭 다녀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현재의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진짜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한수 '전부를 걸어들어라'



왜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성취한 것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항상 행복해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인식이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 기금과 훌륭한 외모,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슬픔과 자아도취에 빠져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고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풍부하고 활기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믿음을 동경은 하지만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어떤 지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곳으로 안내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단서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 박 고프 '드림 빅'



잠언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옳은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옳다, 옳다, 다 옳다!'는 감탄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을 생각과 말과 행실로 실천해야 합니다. 묵상한 진리가 삶 속에서 육화되어야 합니다. 말에서 육화되고, 일하는 방법에서도 육화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친절한 말이 지혜의 육화이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할 때 진리가 육화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육화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자주 나 자신을 세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발당합니다. 그 고발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무릎 꿇을 때, 조금씩 진리의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진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파내도 물은 고갈되지 않고,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봉 '잠언'

나태주 시인·정신과 의사 이영문...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책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태주의 시와 함께 저자가 직접 마음 치유를 한 경험이 담겼다.

나태주 시인은 국립공중병원으로 부임해 온 정신과 전문의 이영문 원장을 만나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 시인과 이영문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된 다양한 위로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책에

는 나태주의 대표 시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다. 저자는 "정신병리를 단순히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난해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었다"고 전한다.

나 시인은 이영문에 대해 "인생 후반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영문 원장"이라며 "서양 속담에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친구로서의 만남"이라고 밝혔다.

"기억이 사람보다 더 슬프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서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사랑 그 자체보다 사랑했었다라는 기억이 삶의 고비마다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억에 관여하는 감정과 장소와 이야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억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잊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기억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141쪽) 조수원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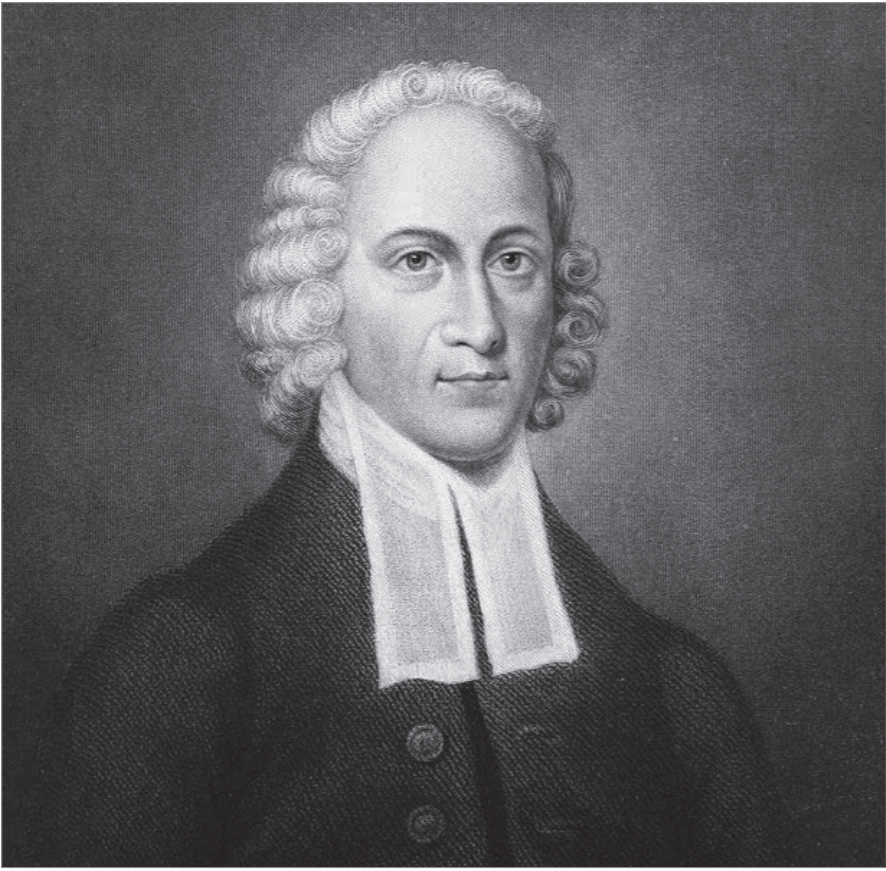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강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이야기 (9)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나무위키

IV. 결론적 고찰(116-121)

1. 대각성의 퇴조

1734년-1735년에 걸쳐 에드워즈와 노샘프턴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 시기는 가장 건강한 시기였다. 하지만 특별한 부흥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커다란 영적 고통 속에서 자기 목을 따려는 격렬한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거치는 일이 일어났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1735년 5월 하순경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물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탄이 더 자유로이 역사하고 있으며 무섭게 날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조짐의 첫 사례는 다음 해인 에드워즈의 이모부인 조셉 홀리의 자살이다. 홀리의 집안은 우울증을 병역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고민으로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고 밤중에도 지옥의 공포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을

찌름으로서 생을 종결하였다. 후일 에드워즈가 노샘프턴에서 해임당할 때 반대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홀리의 아들이다. 그도 후일에 에드워즈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살하고 만다. 아무튼 조셉 홀리의 자살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상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상한 광신적 망상에 빠져들어 간 두 사람의 사례가 발생했다(사필드와 사무스 해들리 사람). 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비상한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시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117-8).

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 노샘프턴 지역에서는 회심이 드물게 일어났다(피비 바틀릿의 경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영은 이 군에서 아주 현저히 떠나시는 것 같았다. 노샘프턴과 주변 지역 사람들은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일이 다시 소생될 것처럼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대세는 그 일

반적이고 집중적이며 생가있는 신앙적 혼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마는 일들이 발생했다. 사람들의 대화 소재는 총독의 방문, 인디언들과의 조약에 관한 회의의 위원회, 스코필드 논쟁 등으로 옮겨갔고, 곧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meeting house를 짓는 일에 몰두하고 맡게 된다(119).

2. 대각성의 결과들

그러나 에드워즈의 관찰에 의하면 대각성 기간 동안 회심 되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 하나님과 신적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및 복음의 위대한 일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 주제들의 진리에 대해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질과 태도가 과거에 아주 거칠었던 어떤 이들은 놀랄만 큼 부드러워지고 달콤

해졌다. 어떤 이들의 영혼은 빛 사람, 그리고 위로로 충만했다. 보고서를 쓰던 시점(1736년 11월)의 노샘프턴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를 즐겨했다. 젊은이들 가운데 과거의 해이하고 방종한 생활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된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120).

“하나님은 여러모로 이 일의 방식을 주관하셔서 그것이 그분 자신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임무를 분명하고도 경이롭게 보여 주셨다. 그리하여 그 영광을 전적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적 은혜에 돌리셨다. 그 부수적 상황과 수단이 어떠했건 간에,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아주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여기 세계의 이 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121).”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이야기
작성자 orangkr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3:26-28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믿음으로 새 정체성을 얻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죄 된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을 완전히 수용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마가복음 8:34; 누가복음 9:23).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

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2:13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베드로전서 5:14; 빌립보서 1: 10; 로마서 8:1). 골로새서 3:3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죄값은 치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품으신 모든 분노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벌을 대신 받아 고��받으셨습

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요한복음 19:30).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지상에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증명하셨듯, 지상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28:7; 마가복음 16:6; 고린도전서 15: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타락한 세상을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반역 행위의 죄값을 성공적으로 치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자신의 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과 기록은 우리가 품었던 모든 죄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우리는 기록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과의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3:10-

12). 성경은 우리의 원래 되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합니다(로마서 5:10).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와 위치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 목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행위와 뒤바꾸십니다(고린도후서 5:21). 십자가 말지에서 기록한 교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 된 옛 본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이 교환됩니다(고린도후서 5:17).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정한 대신에, 자신의 아들의 의를 보신다는 뜻입니다(에베소서 2:13; 히브리서 8:12).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죄의 빛은 탐감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며, 우리의 영생은 보존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3:16-18; 20:31).

갓퀘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39:2 NIV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 rise: (누워앉아-무릎 꿇고 있다) 일어나다
- perceive: 알아차리다, 감지(感知)하다

- thoughts: (마음속의) 생각
- from afar: 아주 멀리서(도)

시편 139편 2절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아십니다. 주는 아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십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John 16:28 NIV

I came from the Father and entered the world; now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 enter : (들어)오다 (enter는 완전 타동사이므로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됨)
- the world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 leave the world : 이 세상을 떠나다
- go back to the Father : 아버지

게로 돌아가다

“현재진행형”이 쓰인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도(a firm intention)나 확실한 결정(a definite decision)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초이스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핵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중량용 선착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화 정성 광동 쌍희진 30회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초이스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초이스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론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강지윤 칼럼 모성애를 찾기 위하여



강지윤 박사

산과 인접한 우리 집 마당에는 각종 텃새들이 모여들어 한낮의 따스한 햇볕 속에 마당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모이를 열심히 찾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방울새, 참새, 까치, 곤줄박이, 쇠박새, 등 이름을 모르는 텃새들도 날아듭니다. 가끔 한가로운 주말 오후에 거실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면서 작은 새들의 먹이찾기 행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가득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당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사철나무 이파리 속에 작은 새둥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새둥지 속에는 이제 막 부화된 듯한 아기 새들이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 다섯 마리의 아기 새들이 진녹색의 이파리에 감춰진 채 비밀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들이라는 신기하다며 계속 들여다보고, 저는 그 아기 새들이 다칠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에게 다짐을 했지요. 절대로 이웃집 아

이들에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어느 날 밤, 비바람이 심하게 흠뻑리고 천둥이 무섭게 치는데, 아기 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랜턴을 비추며 아기 새가 있는 나무를 비추었더니, 나뭇가지들이 휘어진 채 새둥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버렸습니다. 아기 새가 작은 날개 두 개를 있는 대로 펼치고 아기 새를 비바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기 새의 불안한 눈동자와 고깃집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끼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이 너무 놀랐습니다. 인간에게 들킨 천둥치는 밤, 비를 흠뻑 맞으며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동지를 떠나지 못하는 놀라운 모성애를 지켜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작은 아기 새는 동지 위에 날개를 가득 펼친 채 그 자세 그대로, 그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눈물겹게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내담자들의 얼



굴을 떠올렸고, 새만도 못한 부모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들의 반복되는 언어와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만성 우울증

환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자살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슴에 비수가 쏘인 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분노로 자신의 전존재를 잠식당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작은 날갯짓으로 목숨 걸고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저 작은 텃새보다 나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성애는 하나님이 모든 여성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모성애의 본능을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모성애의 본능마저 허물어질 만큼의 깊은 상처를 받아 자기 자식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다그치고 허물을 들춰내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엄마들이 이 본능을 되찾으려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야겠지요. 그래야 자식의 진정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자식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상담실에 오기를 거부하는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는 상담자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회복하여 자녀를 향한 사랑을 다시 찾아내어, 자녀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모성애 가득한 엄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엄마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자식을 실제로 살해하는 일조차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모성애로 다시 회복하여 자녀들의 비바람과 천둥을 막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발견하고 닦아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행복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행복이 와도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행복은 행복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아무리 큰 불행이 와도 그 불행을 마음에서 불행으로 느끼지 못하면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불행해요.”

“.....”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무관심과 새엄마의 마음 속에서 눈물로 자랐어요.”

이제 스무 살을 막 넘긴 여대생 K양.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했으며, 새엄마 아래서 천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 미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나 심지어 자신에게도 불만투성이가 된 그녀는 늘 고통 속에서 눈물지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파랑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발견한 파랑새를 자기 집으로 가져왔을 때 노랑새로 변했던 것처럼, 같은 환경이지만 남의 집 일은 행복해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새엄마 밑에서 자란 고통이야 크겠지만, 친엄마가 키워주며 매 맞고 비뚤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나?”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집니다. 물론 새엄마 밑에서 남모르는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서 새엄마가 때로 미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임하고 재우며 먹여주어 아무 탈 없이 자라게 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문제는 마음에 남아 있는 새엄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인생을 흐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바뀌는지 알게 될 거다.”

일본의 성공학자 ‘후다 켄’은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부와 행복의 법칙』에서 순자산 1억 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 965명을 조사한 결과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전체 중 1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백만장자 5명 중 1명이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빛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상도 못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인

생을 결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수심 1미터의 강에서도 익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닦혔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회사도, 일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큰 성공과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매일 못한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꿔 주십니다.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故 김성광 목사

은혜 한 장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5

기쁜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당신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 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피톤치드

신앙과 가정 예배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고 싶어요' 중년의 나이에야 길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발견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던 인생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던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박힌 예수님이 내게는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세계에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을 기

록해 놓았는데 가장 먼저가 '예배입니다. 24 장로, 천사들의 예배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도 기도도 헌신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예배뿐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어느 장로님이 고백했습니다. '차 사고로 인해 어지러운 마음에 새벽 예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고 하는 바람에, 새벽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새벽에 잘 나왔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매주 LA까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배

를 위하여 달려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는 누가 오든 안 오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날씨가 어떻든 그렇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새벽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디를 가든 예배하는 곳이 있다면, 그 어느 곳에 가든 예배부터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무지 예배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온 마음을 기울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를 쓰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오랜 관습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예배

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엉엉 울며 감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리고 높이를 깨달은 것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뭘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아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

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드러난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 25:1-12
오늘의 요절 / 사도행전 25:10

유대인 지도자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한 후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2. 능히 증명하지 못하자(6-10절) 바울의 재판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함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송사를 했지만, 능히 증거를 찾지 못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은 물론 로마의 법에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고' (8절), '불의한 일을 발견할 수 없었던'(10절)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도 허물을 발견할 수 없도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3.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11-12절)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베스도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결과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처음 계획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결사대로부터 바울의 목숨을 보존하고, 또 다르게 바울의 로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1. 유대인들의 모임, 총독의 판단(1-5절)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다시 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배후에는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길목에 결사대를 매복시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깔려있었습니다. 이 음모는 베스도의 신중한 태도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관리의 바른 판단과 결정은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 **삶을 위한 묵상** : 나의 일터, 사업, 가정,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일하고

♣ **삶을 위한 묵상** : 내가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할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 **삶을 위한 묵상** : 나와 내 가정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들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창골산 봉목사

성경상식

세리

그때도 있었다 세금은 인류 문명만큼이나 역사가 오래지만, 세금을 걷는 세리는 언제나 환영 받지 못했다. 예수의 시대에 세리는 유대인이 외국 억압자로 여기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특히 미움을 많이 받았다. 세리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했고, 세

금에서 떼어낸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불렀다. 그들의 동포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으나 예수는 이따금 세리와 어울렸다. 유명한 삭개오도 그런 세리였는데, 그는 자기 집에서 예수와 식사를 함께 한 뒤, 진심 어린 변화를 경험했다(누가복음 19). 또한 예수는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 12

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 삼았다. 아마 다른 열한 명 제자들은 적잖이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마태는 세리의 수호성인이다.) 예수의 적들은 예수가 세리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예수는 그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태복음 21:31)고 말했

다. 예수의 유명한 비유 중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독선적인 바리새인이 부근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경멸하는 이야기가 있다(누가복음 18:13). 참고로, 킹제임스 영역 성서에는 세리를 'tax collector'로 표기하지 않고 'publican'으로 표기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라)

들녘 출판사 제공

함양육합

자기의 길 가기



하반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처한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분명치 아니하면 무엇을 원치 않는지 분명히 해보십시오. 어렵듯해서는 안됩니다. 허위여서도 안됩니다. 더욱이 다른 이를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종이 반을 가르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때 자신에 대하여 매우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여야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얻을

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과감히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과 혹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현실 가능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 마지막 목표로 이른 나의 모습을 결론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나만의 길, 나의 소명, 나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친구가 쓴 칭찬의 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김영국 목사

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찬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히 13:15)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하여금(히 12:22) 성령의 단비로 생동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배의 책임 레위기는 별 볼 일 없고 실수가 잦았던 아론이 최소한 17번 씩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인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3편에서 찬양과 예배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핵심요소를 형제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 찬양대원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재주와 기술보다 우선하는 것은 겸손한 연합과 형제사랑이라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포용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다음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음악사역자가 펴낸 책을 위하여 쓴 추천의 글인데, 저자가 “친구가 쓴 칭

찬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책머리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 속에서 담임목사와 음악사역자 간의 바람직한 team ministry(동역)의 관계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가 담임목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목회자들 간의 진정한 음악목회의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에서도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시절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친구요 동역자였던 음악목회자 Dave Williamson과 함께했던 사역과 내가 그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도록 격려했던 일들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놀라운 마음과 열정과 재능을 한데 모아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연합한 교회와 찬양대를 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DNA(유전자)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개월 내에 예배시간은 축제가 되었고 찬양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으며 새로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문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고 강한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다.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마음을 열어 축제적인 예배 스타일뿐만 아니라 - 그보다 더 중요한 -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의 양식을 펼치고 발전시키는 사역자와 동역한다는 것은 나에겐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7장의 모든 내용은, 네 생물로 시작하여 다음은 24 장로들, 그 다음은 찬양대, 그리고 결국엔 모든 생물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죽임 당하신 어린양 앞에 경배하며 꿇어 엎드리는 예배의 크레센도(crescendo)가 아닌가요?!

나는 Dave Williamson을, 우리의 어린양과 하나님께 온 삶을 제물로 드리는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귀한 선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적 예배는 단연 하늘의 찬양대의 리하설인 것입니다!

Dave의 책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한 메시지와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 모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의 내용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Dave 자신과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찬양대

원들』은 둘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때를 준비하여 모든 삶과 매일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기쁨을 찾도록 고무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일치하고 있습니다.

Rev. Larry DeWitt (The cornerstone Network, Founding Pastor, Calvary Community Church, Westlake Village, California)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들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예배의 비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야 건조한 곳, 건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5-8)



조성환 목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곧 예배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가뭄이나 더위가 올지라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과 두려움이 없는 삶. 그 잎이 계속 청청한 삶을 보장하고 계신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즉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신다.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좋은 일은 즉 형통(prosperity)이다. 여호와와 그 마음에 없는 자는 그 형통이 자기에게 와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비극이 바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즉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통함을 우

리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런 축복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한 주간의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우리 앞의 난관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주님을 예배하고 의뢰하는 길이다. 비록 그런 열악한 환경(더위와 가뭄)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 번 결실을 맺는 삶이 아니고 일년 내내 결실을 맺는 삶을 약속해주신다. 예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모든 자들에게 보장된 것인데 그 비밀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배뿐이다.

이런 축복이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팀 구성에 따른 선곡의 변화



고용일 목사

교회마다 찬양팀의 구성은 다를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모이는 밴드의 구성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예배인도자는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팀의 유형에 맞게 선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팀의 구성 상황에 따른 선곡의 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아래의 도표가 참고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모든 예배인도자들이 선곡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다.

◆고용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 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를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팀 구분		선곡 기준
Full Band	Dr, B.G, Key 1, Key 2, E.G, AC Guitar	1. 강하고 선풍적인 곡 2. 밝고 경쾌한 곡 3. 느리고 웅장한 곡 4. 느리고 고백적인 곡
Mini band	Dr, Key 1 <or> Dr, B.G	
Simple Band	Key 1 <or> AC Guitar	
Full Singer	리더 외 6명 이상 기준	
Duet	리더, 1명 <or> 리더, 2명	
Leader Solo	리더	
팀별 선곡 유형		
Full Band & Full Singer		1, 2, 3, 4
Full Band & Duet		2, 3, 4
Full Band & Solo Leader		(2), 3, 4
Mini band & Full Singer		2, 3, 4
Mini band & Duet		2, 4
Mini band & Solo Leader		4
Simple Band & Full Singer		3, 4
Simple Band & Duet		4
Simple Band & Solo Leader		4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나를 넘어선다는 건 세계를 넘는다는 것

삼성생명
안세영 선수

15살에 첫 국가대표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하나씩 한계를 넘어섰다
그렇게 세계랭킹 1위
이제 나를 넘어설 차례다

안세영 선수의 도전에
삼성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